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음 1월 28일) 제20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포토라인에 선 MB



10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피의자’ 이명박, “난 모른다”

검찰, 소환조사 나서

다스·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모든 혐의 부인

삼성 대납 다스 소송비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핵심은 ‘뇌물죄’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도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공무원 동원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

지방검에 출석했다.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따른 것이다. 퇴임 후 1844일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께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발해 9시23분께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디다만 말을 아껴야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변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실 1001호실에서 티타임을 가진 후 오전 9시 49분부터 오후 8시 현재에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된다.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현금 수수,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갖은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에서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29기)가 주축이 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추궁했다.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사도 참여해 실무 등을 도왔다.

첨단1부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비밀창고’로 거론되는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특수2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수사를 벌였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이 전 대통령 측근 다수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등이 조사 등 과정을 지휘한다. 두 사람 역시 지난해 특검팀 파견돼 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4명은 이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10분께 검찰에 나왔다. 강훈(64·14기)·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등이다. 이들은 혐의별로 돌아가면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이상민 기자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 전망대 일반인에게 개방

<새만금 33센터 전망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세계최장(33.9km) 방조제인 새만금 2호와 3호 방조제의 중간에 위치한 새만금 33센터내 전망대를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관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반인들의 방조제 주변 다양한 볼거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방하게 되었다.

개방시간은 일몰 등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새만금 33센터는 그동안 신시 배수갑문 조작과 방조제 및 새만금 호관리를 위한 사무소로 이용되었다.

33센터내 전망대는 지상에서 33m 높이로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등 외측과 새만금호 내부를 360° 둘러볼 수 있고, 국내 최대 유압식 배수갑문인 신시배수갑문을 가장 가까운



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33센터.

농어촌공,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2호와 3호 방조제 주변관광지인

고군산 연결도로, 자연쉼터, 아리울 예술창고(공연장) 등과 연계할 수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한민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신항만 예정 부지와 수평선 너머에 감추어져 있던 신항만 방파제를 볼 수 있는 등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규성 사장은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께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지역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하게 되었다.”며,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개방시간을 한정하고, 일부 시설에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안전한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벚꽃로맨스 3. 31 ~ 4. 8 바래봉철쭉 4. 21 ~ 5. 20
춘향제 5. 18 ~ 5. 22 봉화산철쭉 4. 28 ~ 5. 27

